



김진우



임준혁

이름값 보다 흘린 땀



김기태 “준비한 선수에 기회... 자기관리도 실력”
순번 밀린 선수들이 악물며 자기발전 노력

“부상도 실력이다.”
매년 KIA는 주전 선수들의 출루상으로 ‘부상 병동’으로 통했다. 올 시즌도 예외는 아니다. 시범경기 마지막날 외야수 신종길이 공에 맞아 우측 견갑골 골절 부상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임준혁, 박준태, 김원섭, 김주찬, 신종길, 최용규 등이 재활군에 다녀왔다.
부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부상 영향력은 줄었다. 부상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그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김기태 감독은 KIA 사령탑에 맡은 후 같은 출발선에서 선수들을 재평가했다. 이름값을 빼고 새 시즌을 가장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한 이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김 감독의 입장이었다. 시범경기를 준비하고 개막 엔트리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이런 의중이 드러났다.
김 감독은 마운드의 모범생으로 꼽힌 임준혁을 선발로 낙점하며 믿음을 보여줬다. 92경기 흥건희와 한승혁은 희비가 엇갈렸다. 캠프 초반 성적과 앞선 경험, 구위로는 한승혁이 선발 자

리를 낙점받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옆구리 부상으로 중도에 귀국을 해야 했던 한승혁 대신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지키며 한발 한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흥건희가 개막 엔트리에 합류를 했다.
김 감독은 나름의 원칙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적용하면서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기회를 얻은 선수는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순서가 밀린 선수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를 악물면서 자기발전이 이뤄졌다.
김진우도 예외는 아니다. 앞선 경력과 이름으로 김진우는 당연히 올 시즌 선발진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체력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컨디션 관리에 실패한 김진우는 오키나와 캠프 대신 대만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부상으로 시범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2군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 6일 김진우가 드디어 1군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김 감독은 그의 기용을 놓고도 자신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9일 김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일단 대기를 한다. 주말 삼성전 선발로 이름을 넣어두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다른 기용도 가능하다. 부상 선수들은 다른 선수에게 자신이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우선 순위대로 가는 것이 맞다. 순번이 밀린 것은 사실이다. 안 아픈 것도 실력이다”며 “은행에 가도 변호표를 뺏아서 대기하지 않는다. 순번대로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웃었다.
농담으로 말을 마무리했지만 김 감독의 원칙은 확고하다.
부상을 대하는 사령탑에 대한 달라진 의지 속에 기회를 얻은 선수들의 투혼도 부상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종길의 부상 속에서는 김다원이 실력 발휘를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외야의 출루상속에서는 김호령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됐다. 잘 버티주던 최용규가 손등 부상으로 빠지자 백전노장 김민우가 불 같은 활약을 해주는 등 부상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갔다.
차별 없는 출발선을 이야기한 김 감독이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마지막 결승선이기도 하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기회를 시간, 기회의 땅을 노리고 있는 선수들로 KIA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요정의 훈련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9일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 리듬체조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號, 부상 복병에 뒷문 '비상'

수비수 주세종·임창우로 교체

UAE 평가전 엔트리 짜기 고심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 슈틸리케호가 동남아 2연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의 '피로와 부상'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8일(한국시각) 밤늦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9일 새벽에야 숙소가 있는 사알람에 입성했다.
대표팀은 이날 소집되면서 애초 발표된 23명의 명단 가운데 2명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수비수 김기희는 오른 발꿈치 타박 때문에 회복에 1~2주가량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주세종(부산)으로 교체됐고, 역시 수비수인 임재민(성남)도 발등을 다쳐 임창우(울산)로 바뀌었다.
동남아 2연전을 앞두고 슈틸리케 감독이 생각한 선수 구성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지난번 대표팀 명단 발표 때 기초군사훈련 등으로 빠지는 선수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주말 경기를 통해 추가 부상자가 생겨서 어려움이 가중

UAE 평가전 예상 선발 라인업
11일 오후 6시20분 말레이시아 사알람 스타디움 (SBS 중계)



연합뉴스

됐다”고 아쉬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쳐 있는데다 부상 선수들이 수비수에 집중되면서 슈틸리케로서는 당장 11일 오후 6시20분 말레이시아 사알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가전에 나설 베스트 11 짜기도 고민스러워했다.
이번 원정에 나선 선수 가운데는 A매치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가 6명이나 되는 것도 슈틸리케 감독에

게는 부담이다. 비록 평가전이라는 하지만 16일 태극 방곡에서 치러지는 미얀마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 나설 선수들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무작정 새 얼굴만 투입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은 UAE전에는 기존 가동했던 베스트 11의 윤곽에 맞춰 새로 합류한 일부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UAE전에는 최근 K리그 챌린지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한 이정협(상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좌우 날개에 손흥민(레버쿠젠)-이정용(불턴) 조합이 가동될 공산이 크다. 최근 컨디션이 최고인 '원발의 마법사' 염기훈(수원)이 손흥민 대신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고, 이재성(전북)이 이정용을 대신할 수도 있다. 중앙 미드필더는 한국영(카타르SC)의 쪽으로 누가 나서느냐가 관심거리다. 장현수(광저우 푸리)와 최보경(전북)이 경쟁선에 있다.
포백(4-back)은 김기희(전북)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최근 독일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흥정호(아우구스부르크)와 '최고참' 광태휘(알 힐랄)가 중앙 수비수 호흡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좌우 풀백에는 김진수(호펜하임)와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견제하다.
골키퍼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김승규(울산)-정성룡(수원)의 주전 경쟁이 치열하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총 금메달 102개

IOC, 세부종목 6개 도입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4개 종목에 걸쳐 6개 세부 종목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종목에서 세부종목 2개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걸린 금메달 수는 총 102개로 확정됐다.
IOC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컬링 혼성, 스피드스케이팅

보드 빅 에어 남녀 종목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새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IOC 집행위원회는 스노보드 남녀 평행회전(parallel slalom)은 2018년 대회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 총 금메달 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98개에서 4개 늘어난 102개로 결정됐다.
동계올림픽 사상 금메달 수가 100개를 넘긴 것은 2018년 평창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임선영 K리그 15R 베스트 11

광주 FC의 '캡틴' 임선영이 15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팀의 1-0 승리를 지휘한 '캡틴' 임선영은 “탄탄한 체력을 앞세워 상대의 발을 묶는 움직임과 압박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한 광주 공격의 꼭짓점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임선영은 자신의 100경기 출장 경기였던 제주전은 물론 전남, 수원과의 승부에서도 중흥 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다.
광주는 돌풍을 재점화하며 클래식 리그 4위로 올라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